

『東醫壽世保元』의 性情 相成相資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 慶熙大學校 文科大學 哲學科²

趙榮¹ · 金守中² · 白裕相¹ *

The Interconversion of The Nature and The Emotion in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Cho Young¹ · Kim Soo-joong² · Baik You-sang¹ *

¹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Dept. of Philosophy, College of Humanities, Kyunghee University

Since the days of early Confucianism, the nature(性) and the emotion(情) have been the methodological tool to explain the original nature of the human being, by dividing the human mind into the nature and the emo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conversion(相成相資) theory of the nature and the emotion mentioned in the 「Sadanron(四端論)」 chapter of 『Dong-uisusebowon』. We have contemplated how Gi(氣) of sadness and anger mutually create each other, that of pleasure and enjoyment do as well, transforming sad nature[哀性] of the Taeyang-in(太陽人) into anger emotion, anger nature of the Soyang-in(少陽人) into sad emotion[哀情], pleasure nature[喜性] of the Taeuemin(太陰人) into enjoy emotion[樂情], enjoy nature[樂性] of the Soeumin(少陰人) into pleasure emotion[喜情]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nature changes into the emotion based on the original texts of 『Dong-uisusebowon』, 『Sasang-uihakchobon-gwon(四象醫學草本卷)』 and 『Gyeokchigo(格致藁)』.

Key Words : the nature(性), the emotion(情), interconversion, Dong-uisusebowon.

I. 序論

性情이란 초기 儒學에서부터 인간의 마음을 ‘性’과 ‘情’으로 구분하여 인간의 本性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적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宋代 性理學에서 ‘性’을 天理로, ‘情’을 마음이 사물에 응하여 나타나는 感情으로 양분하여 그 차별성을 강조한 이후, 朝

鮮의 性理學者에 의해 ‘性’을 仁義禮智라는 四端으로, ‘情’을 喜怒哀懼愛惡欲이라는 七情으로 구별하여 人性論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¹⁾ 본래 儒學은 道學으로서 孔孟의 正名思想 이래 正道를 실천하려는 實踐倫理的 학문이었다. 이것이 宋代에 들어서 宇宙와 人性의 본체를 理氣論의으로 규명하려는 性理學으로 체계화되면서 人性의 糾明을 주목적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
전화) 02) 961-0326, E-mail : baikys@khu.ac.kr
접수일(2009년 4월 25일), 수정일(2009년 5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1) 金貞香. 李濟馬의 性情論에 관한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1990. p.1.
成校珍. 東洋哲學概論. 서울. 以文出版社. 1989.
pp.173-181. 재인용.

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天理萬物의 本性까지 함께 관련지어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지나치게 朱子學을 숭상하여 朱子學 이외의 학문을 異端邪說로 간주하는 등의 배타적 경향이 짙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理先氣後’의 主理의 경향은 ‘理尊氣卑’라는 形而上學의 사고로 발전하여 理와 氣, 天理와 人慾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禮飾과 名分만을 앞세우고 實利와 現實을 무시하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경직되고 폐쇄된 性理學을 비판하면서 經世致用 利用厚生의 實學的인 유학이 개화 과학자에 의해 다시 고조되고 知行一致와 實心 實用을 추구하는 陽明學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도입되기도 한 것이다.²⁾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朝鮮 말기의 李濟馬는 朱子學 이전의 『大學』, 『中庸』, 『論語』, 『孟子』 등에 담긴 儒教 본래의 道學的 이념을 존중하며 인간을 정신과 육체의 全人的 통일상으로 이해하는 實存的 實學思想의 입장에서 四象醫學을 제창하게 되었다.³⁾ 李濟馬의 초기 저서인 『格致藁』에서는 ‘誠’과 ‘知人’을 강조하며 ‘修己治人’의 조화를 말하였고,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心因論의 病因觀을 가지고 과도한 감정의 폭발을 경계하고 있으며, 「性命論」에서는 額臆臍腹과 頭肩腰臀에 숨겨진 邪心과 怠行을 들어 실천 윤리적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⁴⁾ 또한 「廣濟說」에서는 천하의 병이 모두 ‘妬賢嫉能’에서 비롯된다하여 四象醫學이 人心이 天命으로부터 받은 人性, 즉 性情을 바탕으로 한 醫學임을 말해주고 있다.

東武 李濟馬(1837 - 1900)의 저서 중 『東醫壽世保元』이 醫學書라 한다면 『格致藁』는 哲學書라 할

수 있다. 본 論文에서 인용된 『格致藁』와 『四象醫學 草本卷』, 『東醫壽世保元』의 저술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格致藁』는 李濟馬가 44세 되던 해(1880년, 庚辰)부터 57세(1893년, 癸巳)에 『東醫壽世保元』(1893 - 1900) 집필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10여년에 걸쳐 「獨行篇」, 「儒略」, 「反誠箴」의 順으로 완성해 나간 점으로 볼 때 이 3권의 내용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사상의학의 原理論을 형성하는 철학적 기초가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⁵⁾ 그리고 『四象醫學 草本卷』은 그 저술 시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내용면에서 봤을 때 1882년에 작성된 『東武遺稿』 「教子平生箴」 보다는 후에, 1893년에 저술된 『格致藁』 「反誠箴」 보다는 이전에 쓰인 것으로 보여 진다.⁶⁾

본 논문은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언급되고 있는 性情의 相成相資 이론에 대한 연구로 哀怒之氣가 서로 相成하고 喜樂之氣가 서로 相資하여 太陽人의 哀性이 怒情으로, 少陽人의 怒性이 哀情으로, 太陰人의 喜性이 樂情으로, 少陰人의 樂性이 喜情으로 전화되는 기전과 性이 情으로 변하게 되는 여건에 대해 『東醫壽世保元』은 물론 『四象醫學 草本卷』과 『格致藁』의 원문을 근거로 고찰하여 보았다.

II. 本論

1. 儒學과 東武의 性情에 대한 概念 비교

기존의 儒學에서는, 性은 理로서 이것이 현실 속에서 드러날 때에는 仁義禮智로 표출되는 반면에 情은 氣의 변화로 나타나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상태의 표현으로 喜怒哀樂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보아 理와 氣, 그리고 未發之性과 已發之性을 나누어 인식하였다. 그러나 東武는 이러한 儒學的 性情觀과는 다르게 心을 理로 규정하고, 仁義禮智를 담고 있는 肺脾肝腎에 의해 드러나는 喜怒哀樂을 氣로 규정하여 외

2) 金貞香. 李濟馬의 性情論에 關한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1990. pp.1-2.

李乙浩. 茶山學의 理解. 서울. 玄岩社. 1973. pp.311-337. 재인용.

3) 白裕相. 四象醫學이 가진 韓國 韓醫學의 特性에 對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1). p.139.

4) 金貞香. 李濟馬의 性情論에 關한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1990. p.2.

李乙浩, 洪淳用.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3. p.27. 재인용.

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0.

6)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p.24-29.

부세계로부터 감각기관인 四官을 통해 肺脾肝腎으로 歸體되어 들어오는 氣를 順動之氣인 性으로 인식하였고, 肺脾肝腎으로부터 몸을 통해 發用되어 나가는 氣를 逆動之氣인 情으로 인식하였다. 朱子の 표현⁷⁾에 의하면 일단 喜怒哀樂을 情이라 규정한 다음 情이 未發한 상태를 性이라 하였으며, 喜怒哀樂의 기운이 未發하였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中이라 표현하고 中이란 天下之大本으로 天下의 理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道의 本體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發而皆中節’에 대해서는 喜怒哀樂의 情 중에서도 바르게 發하여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로 이것을 和라 하고, ‘天下之達道’라 하여 喜怒哀樂之氣 중에서 性을 그대로 좇아 따르는 것이 道의 用이 된다고 하였다. 즉, 朱子는 性을 道의 體로, 情을 道의 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는 性이 極하면 情이 動한다는 相成·相資를 설명하고 난 뒤 太陽·少陽은 과도한 哀怒를 恒戒⁸⁾하라고 하였고 太陰·少陰은 과도한 喜樂을 恒戒하라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의 「四象人辨證論」에서도 “太陽人, 恒戒怒心哀心. 少陽人, 恒戒哀心怒心. 太陰人, 恒戒樂心喜心. 少陰人, 恒戒喜心樂心.”⁹⁾이라 하여 喜怒哀樂¹⁰⁾을 항상 경계[恒戒]하여야 할 대상에 性과 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또한 「四端論」에서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

之和. 喜怒哀樂未發而, 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而, 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¹¹⁾라 하여 ‘喜怒哀樂이 未發한 상태에서도 性情의 움직임은 항상 경계하여야 中에 가까워질 수 있고, 이미 喜怒哀樂이 發한 상태라도 스스로 돌이켜 반성하면 절도에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을 보면 東武는 朱子와 같이 未發, 已發을 기준으로 性情을 구분하여 性은 動하지 않는 理致, 즉 未發한 상태이고, 情은 已發하여 氣運의 變動이 생긴 현상화 된 상태라는 개념이 아니라 性과 情이 모두 理氣의 차원에서 未發한 상태일 수도, 已發한 상태일 수도 있는 개념으로 性情을 파악한 것으로 보여 진다.¹²⁾ 즉, 이것은 情이 情氣로써 작용하여 臟의 기운이 發用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물론 性 또한 性氣로써 작용하여 체내 기운의 변화를 조래하여 臟에 기운을

11)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著.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8.

12) 李濟馬 原著. 朴大植 譯註. 格致彙反誠箴乾箴. 경기도. 청계출판사. 2002. pp.205-206. “既有來往立臨之命, 則亦自有不來往不立臨之命也, 既有喜怒哀樂已發之性, 則亦自有喜怒哀樂未發之性也. 不來往不立臨之命, 豈非處獨之命乎? 獨之所性, 孰如戒慎恐懼漸次以中乎? 是故, 喜怒哀樂者, 來往立臨之間, 與人相接之性, 而有節不節也. 戒慎恐懼者, 不來往不立臨時, 自己獨得之性, 而有中不中也.”라 하여 往來臨立에 없는 自己獨得之性은 喜怒哀樂未發之性이라 하였고 往來臨立의 상황에서의 與人相接之性은 喜怒哀樂已發之性이라 규정하였으며, 『四象醫學草本卷』 「第三統」에서는 “健剛柔順, 性理之四偏也, 喜怒哀樂, 情欲之四偏也. 性理之偏行之, 而察中奪則求也, 情欲之偏行之, 而察節奪則得也. 欲求性理之偏者, 富貴顯達, 雖則求之, 而不可以汲汲也. 貧賤困窮, 雖則達之, 而不可以戚戚也. 情欲之偏者, 財權酒色, 雖則難節, 而不可以不節也. 語謀行正, 雖則難正, 而不可以不正也.” 喜怒哀樂之未發을 健剛柔順이라 이름하여 性으로 설명하였으며, 喜怒哀樂之已發을 情으로 설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東武도 『東醫壽世保元』 이전의 저술인 『格致彙』와 『東醫壽世保元草藥』에서는 未發之性을 性으로 已發之性을 情으로 개념을 잡고 있었으나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서 性情을 모두 未發할 수도 있고 已發할 수도 있는 理氣의 입장에서 개념설정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格致彙』와 『東醫壽世保元草藥』에서도 喜怒哀樂에 대한 未發과 已發의 기준은 朱子의 그것과는 틀린데, 朱子는 未發을 理의 차원에서, 已發을 氣의 차원에서 봤던 것에 비하면 東武는 未發과 已發을 모두 氣의 차원에서 해석하여 未發한 상태는 타인이나 物과의 접촉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운의 변화로 보았으며, 已發한 상태는 타인이나 物과의 접촉이 있어 겉으로 기운의 변화가 표출되는 상태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7) 金赫濟 校閱. 原本備旨 大學中庸. 서울. 明文堂. 1995. pp.9-10.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라 하였으며, 그注에서 “喜怒哀樂, 情也. 其未發則性也. 無所偏倚故, 謂之中. 發皆中節, 情之正也. 無所乖戾故, 謂之和. 大本者, 天命之性, 天下之理皆由此出, 道之體也. 達道者, 循性之謂, 天下古今之所共由, 道之用也. 此言性情之德, 以明道不可離之意.”

8) 恒戒: 恒은 항상 향, 戒는 경계할 계로서 경계의 의미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나 사건을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의미로 恒戒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고 마음을 쓴다는 의미이다.

9)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著.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42.

10) 여기에서 ‘未發한 喜怒哀樂’이란 朱子의 天命之性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東武의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란 표현 중 性情으로서의 喜怒哀樂이 표출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이다.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또한 東武는 性情을 逆順의 개념으로 보아서 哀怒喜樂이 四臟에 자리 잡기 전 天機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順動之氣인 性으로, 四臟에서부터 몸을 통해 밖으로 행해지는 과정을 逆動之氣인 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逆順과 性情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順逆'에 대한 字意를 『周易』에서 살펴보면 『周易』 「說卦」 3章에서 “數往者 順하고, 知來者는 逆하니, 是故로, 易은 逆數也.”라고 하였는데¹³⁾ 易理에 있어서 '順'이란 時間的으로는 未來에서 過去를, 空間的으로는 上(天)에서 下(地)를 志向하는 作用性을, 象數學的으로는 9에서부터 1로 統一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반면에 '逆'이란 時間的으로는 過去에서 未來로, 空間的으로는 下에서 上으로 志向하는 作用性을, 象數學的으로는 1에서부터 9로 發展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마치 陰陽이 上升·下降하여 交流 合德하는 것과 같다¹⁴⁾. 逆順의 개념을 통하여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天機는 順으로, 그리고 人事는 逆으로 작용하는데¹⁵⁾, 耳目鼻口를 통해 天理를 받아들여 性으로써 太極之心을 이루고 여기에서 性氣가 四臟으로 注入되는 과정을 天機와 性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고, 四臟의 힘으로 다시 人事를 행하는 과정을 情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天으로부터 人心으로 그 天理之變化의 理致가 부여되는 과정 [性]이 順인 것이며, 人身의 四臟에서 四臟之氣의 활동으로 人事를 행하는 과정 [情]이 逆인 것이다. 그러므로 天理로부터 理致를 부여받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性氣는 順動之氣로써 작용하고, 人身의 四臟으로부터 발동하여 哀怒喜樂之情이 겉으로 드러나는 氣運의 운동은 逆動之氣로써 작용하게 된다.

2. 『東醫壽世保元』의 性情 개념

13) 成百曉.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연구회. 1998. p.603.

14) 金滿山. 周易의 관점에서 본 四象醫學原理(1)-性命論에 관하여. 한국동서철학회. 1999. 18(1). p.9.

15) 金滿山. 周易의 관점에서 본 四象醫學原理(1)-性命論에 관하여. 한국동서철학회. 1999. 18(1). p.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人之耳目鼻口, 天也.”라 하여 天機를 살피는 耳目鼻口를 天이라 규정하였으며, “人之肺脾肝腎, 人也.”라 하여 人事를 행하는 肺脾肝腎을 人이라 규정하고 있다. 耳目鼻口는 聽視嗅味之力으로 天機를 받아들여 心을 거쳐 四臟에 性의 특성을 注入시키는 역할을 하며, 肺脾肝腎은 臟氣를 소모시키면서 人事를 情으로써 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性은 先天的으로 稟賦받은 고유의 자질을 말하며, 情은 사람이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면서 드러나는 기운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四象醫學草本卷』에서는 太少陰陽人の 性情에 대한 설명을 “太陽人, 哀局大而怒器直, 哀大者仁也, 怒直者義也.”, “少陰人, 樂局大而喜器直, 樂大者仁也, 喜直者義也.”, “太陰人, 喜局大而樂器直, 喜大者仁也, 樂直者義也.”, “少陽人, 怒局大而哀器直, 怒大者仁也, 哀直者義也.”¹⁶⁾라 하였으며, 그 앞 문장에서는 “事務衆同也, 籌策由己也… 衆同者天也, 由己者人也. 天者天下所成之局也, 人者一人所作之器也.

16) 李濟馬 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67. 각 체질별 性情에 대해 설명을 한 본 조문에서 性은 大하고 情은 直하다고 표현하였으며, 性이 大한 것을 仁이라하고, 情이 直한 것을 義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大의 의미는 『說文解字注』에서 “天大, 地大, 人亦大焉. 象人形.”이라하였고 그에 대한 注에 “老子曰, 道大, 天大, 地大, 人亦大.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按天之文从一大, 則先造大字也. …大文則首手足皆具, 而可以參天地. 是爲大.”라하여 大는 사람이 天地의 法道를 좇아 형성된 것을 형상화 한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즉 위 조문에서 哀局大, 怒局大등으로 표현된 '大'의 의미는 天地의 외부세계를 향해 열려진 기관(耳目鼻口)을 통해 넓고 크게 받아들이는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 『說文解字注』에서 仁에 대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남을 위해 마음을 쓰는 그 자체를 仁이라 하였다. 즉, 性을 설명하는데 쓰여진 大와 仁의 개념은 외부세계를 넓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주위 인간관계 및 다인에게 관심을 갖고 好善하는 기능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표현하고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直은 '곧다, 바로잡다, 일부러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본연의 성품을 의도적으로 법도에 맞게 무언가 이루어낸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義는 '옳다, 의롭다'란 뜻으로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를 실천하는 덕목이다. 情이 올바르게 선별되어 행해지게 된다(直)면 義에 합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情을 설명하는데 쓰여진 直과 義의 개념은 보다 실천적인 의미로 性命論에서 설명하고 있는 正命之道에 가까워 惡惡의 기능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天下所成者, 其理擴而難周, 明知其理之善者, 德也, 性也. 一人之所作者, 其欲謀膠着而易惑, 誠行其欲之正者, 道也, 命也.”¹⁷⁾라 하여, 『東醫壽世保元草藁』 구조¹⁸⁾ 속에서 天의 개념인 事務, 交遇, 黨與, 居處를 설명하면서 “衆同者天也, 天者天下所成之局也.” 즉, ‘天이라는 것은 하늘(天)의 이치에 따라 이루어진 큰 틀이다.’라 하여 局은 天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人의 개념인 籌策, 謀猷, 材幹, 便宜를 설명하면서 “由己者人也, 人者一人所作之器也.” 즉, ‘人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릇이다.’라 하여 器는 人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天下所成者’는 廣博한 理致로서 두루 알기 어려우나 이를 명확히 알고 잘 따르는 것을 德이라하고 性¹⁹⁾이라 규정하면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太少陰陽人의 哀怒喜樂之性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一人之所作者’는 하고자하는 바 욕구가 慾心에 의한 꾀[謀]와 영겨 붙어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사욕인지 의혹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몸으로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그 욕구를 바르게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道라 하고, 命이라 규정하면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太少陰陽人

의 哀怒喜樂之情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즉, 哀怒喜樂之性은 局, 天의 개념을 따라 天의 기운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순리로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哀怒喜樂之情은 器, 人의 개념을 따라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욕심을 가려내면서 몸으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性情의 相成·相資 상호관계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 怒情動. 怒性極則, 哀情動. 樂性極則, 喜情動. 喜性極則, 樂情動.”²⁰⁾이라 하여, ‘哀氣에 의해 怒氣가 이루어지고 怒氣에 의해 哀氣가 이루어지며, 喜氣가 樂氣를 돕고 樂氣가 喜氣를 돕는다. 上升하는 기운은 上升하는 기운끼리, 下降하는 기운은 下降하는 기운끼리 서로 成하고 資하기 때문에 先天의 으로 哀性이 遠散[極]하면 마땅히 怒情 또한 크게 발휘될 것[動]이며, 怒性이 宏抱[極]하면 마땅히 哀情 또한 크게 발휘될 것[動]이고, 樂性이 深確[極]하면 마땅히 喜情 또한 크게 발휘될 것[動]이며, 喜性이 廣張[極]하면 樂情 또한 크게 발휘될 것[動]이다.’라고 하였다. 즉, 上升하는 哀怒의 기운은 서로 만들어 주고, 下降하는 喜樂의 기운은 서로 돕는다고 설명하였다.

1) 上下表裏 개념으로 본 相成·相資

그렇다면 여기에서 相成·相資에 대한 원리를 上下表裏의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해 보면 위로 向上하여 오르는 陽氣인 哀氣와 怒氣, 아래로 向下하여 내려가는 陰氣인 喜氣와 樂氣는 上下로의 방향지향성에 따라 陰陽이 나누어지고²¹⁾ 陽氣는 陽氣끼리, 陰氣는 陰氣끼리 同氣相求하여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은 같은 방향의 기운끼리는 서로 도움이 되고 상호 전환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極變에 대한

17) 李濟馬 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p.63-65.

18) 李濟馬 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65. 이 부분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東醫壽世保元草藁』와 『東醫壽世保元』에서의 구조적인 차이는 『東醫壽世保元草藁』의 내용이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事務, 交遇, 黨與, 居處는 衆同에서 各立으로 바뀌고, 天의 개념이었던 것이 人으로 바뀌게 되며, 天의 자리에는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이 추가된다. 둘째, 籌策, 謀猷, 材幹, 便宜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으로 바뀌고, 人의 개념이 性(天人性命 중 性)으로 바뀌었다. 셋째, 識見, 威儀, 才幹, 方略의 命은 草本卷에서 없는 개념으로 『東醫壽世保元』에 새로 추가되었다. 넷째, 才幹은 草本卷에서는 人에 속해 있다가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命에 속해졌다. 다섯째, 草本卷 당시까지는 天人構造만 있었으나 『東醫壽世保元』에서 性命의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天은 人으로, 人은 性으로 바뀌고, 天과 命은 새로 추가되었다.

19) 여기에서 天下所成者로서의 性은 아래 一人所作者로서의 命과 대구가 되는 性으로 性情의 性과는 틀린 性命으로서의 性이다. 性情의 性은 天機를 耳目鼻口의 기능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설명된 性이며, 性命의 性은 至性之德을 領臆臍腹의 行其知로써 明辨하여야하는 天人性命구조 속에서의 性인 것이다.

20)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著.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p.17-18.

21)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著.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6.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哀怒之氣順動, 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順動, 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

원리를 설명하자면 하나의 기운이 極한 상황에까지 이르면 전적으로 다른 성질의 기운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相成함으로써 기운이 상호 전환이 가능한 哀怒之氣의 陽氣를 다시 表裏에 의해 陰陽으로 나누어보면 기운이 안[裏]으로 작용하는 哀氣는 陽中之陰으로, 기운이 밖[表]으로 작용하는 怒氣는 陽中之陽으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相資함으로써 기운이 상호 전환이 되는 喜樂之氣의 陰氣를 다시 表裏에 의해 陰陽으로 나누어보면 기운이 겉[表]에서 작용하는 喜氣는 陰中之陽으로, 기운이 속[裏]에서 작용하는 樂氣는 陰中之陰으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다. 相成·相資는 陽性的의 기운인 哀性과 怒性, 陰性的의 기운인 喜性和 樂性이 表裏관계로 서로 전환되는 陰極生陽, 陽極生陰의 과정인 것이다.

위로 향하는 陽性的의 기운인 哀氣와 怒氣는 각기 哀氣는 겉으로 표출되지 않으면서 안으로 깊게 작용하는 성질이 있으며, 怒氣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陽氣인 哀怒之氣를 서로 비교하면 哀氣는 裏, 怒氣는 表에서 작용하며 그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哀氣는 더욱 안으로 깊이, 怒氣는 더욱 바깥으로 멀리 나아가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운이 極에 달하게 된 경우²²⁾에는 表裏가 極變하게 된다. 기운이 안으로 들어와 수렴되지만 하다보면 급기야 폭발적으로 바깥으로 터져나갈 것이며, 기운이 바깥으로 계속 발산되어 나가지만 한다면 결국 안에서는 다시 수렴되는 기운이 생기게 될 것이다.²³⁾ 이러한 상황을 「四端論」에서는 ‘太陽人의 哀性이 極하여 不濟하게 되면 忿怒의 감정이 바깥으로 激하게 드러나게 되며, 少陰人의 怒性이 極하여 이기지 못한다면 悲哀의 감정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²⁴⁾’라고 하였다.

여기서 濟와 勝은 太陽人과 少陰人 각각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太陽人은 원리에 밝고 그 원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주변의 것들을 생략하고 정리를 하고자 하나 지나치게 哀하여 원리에 집착하다보면 실생활에서 사람이나 일의 先後와 輕重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게 되며, 少陰人은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강한테 지나치게 怒하여 경쟁심이 커지면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좌절감 또는 비애감을 느끼게 된다. 즉, 기대치가 높은 만큼 분노와 좌절감이 커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陽性的의 기운이 表에서 極하게 되면 裏氣를 動하게 되고, 裏에서 極하게 되면 表氣를 激動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아래로 향하는 陰性的의 기운인 喜氣와 樂氣는 각기 喜氣는 겉으로 표출되어 남과 함께하는 감정 상태이며, 樂氣는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안으로만 갈무리되어 혼자 그 감정 상태를 즐기는 것이다. 陰氣인 喜樂之氣를 서로 비교해보면 喜氣는 陰氣 중에서도 表로 작용하고, 樂氣는 陰氣 중에서도 裏로 작용하는 성질이 있어 그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喜氣는 점점 넓게 퍼져갈 것이며, 樂氣는 점점 깊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기운이 極에 달하게 된 경우에는 表裏가 極變하여 喜氣의 廣張하게 퍼져나가기만 하던 기운은 안으로 깊고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고, 樂氣의 深確한 기운은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불안정한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四端論」에서는 ‘太陰人의 喜性이 極하여 승복하지 못한다면 侈樂을 부림에 만족함이 없게 되며, 少陰人의 樂性이 極하여 그 樂을 완성해내지 못한다면 겉으로 喜好의 감정이 불안정하게 변덕을 부리는 양상으로 보이게 된다.²⁵⁾’라고 하였다. 여기서 成과 服은 각각 少陰人과 太陰人의 특성을 표현한 것

22) ‘極’의 의미는 어느 한가지의 성질 및 작용이 끝에 도달한다는 의미와 그 극점에 도달하여 그 성질 및 작용이 다하여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極’이란, 性이 好善하는 입장에서 順하게 받아들이는 작용이 타인이나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善한 의지가 좌절되고 내 자신의 입장이 앞선 惡惡의 기능으로 情이 逆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23) 白裕相.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1). p.42.

24)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著.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8. “太陽人, 哀極不濟, 則忿怒激外. 少陰人, 怒極不勝, 則悲哀動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臍,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25)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著.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8. “少陰人, 樂極不成, 則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 則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臍,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이다. 少陰人은 자신의 樂性을 바탕으로 한 대상에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²⁶⁾ 만약 자신의 뜻대로 완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대상을 좋아하면서 몰입했던 감정이 크게 흔들려서 그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주변의 대상에 감정이 분산되게 된다. 太陰人은 喜性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적절한 선에서 서로 수궁하고 승복하는 관계를 잘 받아들이나 그 관계 설정에 승복하지 못하면 한없이 侈樂에 빠져 자기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즉 陰性의 기운이 表에서 喜氣가 極하게 되면 裏氣인 樂이 형성되고, 裏에서 樂氣가 極하게 되면 表氣인 喜가 드러나면서 浮動하게 되는 것이다.

性情에 대한 개념을 결론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性은 天理之變化의 理致가 그대로 人身의 心에 내재된 것으로 이것이 性氣로 작용하여 四維之四象인 四臟으로 氣가 注入되며 이때 드러나는 기운의 변화 양상을 哀怒喜樂之性이라 하고, 性에 의해 四臟에 축적된 氣가 發用하면서 외부 人事에 작용을 할 때 情氣로 작용하면서 드러나는 기운의 변화 양상을 哀怒喜樂之情이라 표현하였다.

2) 哀怒之氣와 喜樂之氣의 상호 極變 관계

그렇다면 왜 哀性이 怒情으로, 怒性이 哀情으로, 喜性이 樂情으로, 樂性이 喜情으로 哀怒의 기운이 교차하면서 性이 情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가?

哀怒之氣와 喜樂之氣가 상호 교차하면서 相成相資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四象醫學草本卷』 「第二統」에 四象體質에서의 性氣에 대한 설명을 한 구절에서 “太陽人之心, 每不得所欲, 而忿捷²⁷⁾之心, 恒放於胸中也. 少陰人之心, 每欲得所欲, 而好樂之心, 恒

放於胸中也. 太陰人之心, 大欲得所欲, 而恐懼之心, 恒放於胸中也.”라 하여 각 체질별로 평소 가슴속에 간직하는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太陽人의 마음에는 매번 자신이 하고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마음[忿懣之心]이 항상 가슴속에 놓여있다. 少陰人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고자하는 바를 매번 얻고자하는 기뻐하는 마음[好樂之心]이 항상 가슴속에 놓여있다. 少陽人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고자하는 바를 크게 얻지 못할까하는 근심 걱정하는 마음[憂患之心]이 가슴속에 놓여있다. 太陰人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고자하는 바를 크게 얻고자하여 생기는 두려워하는 마음[恐懼之心]이 항상 가슴속에 놓여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언급된 조문과 비교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太陽人이 天時를 察함에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것을 보고 哀性이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나는 哀性이 好善之心으로 전혀 사사로움 없는 極公한 상태로 일어나야하나 조금이라도 사사로움이 끼서 그 好善之心이 偏急해진다면 哀性이 제대로 遠散하게 펼쳐지지 못하고 그 사사로움 때문에 情으로 極變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⁸⁾ 즉, 衆人이 서로 속이는 것을 접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好善之心으로 性氣를 發하여야하나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이 개입되면서 情氣가 발동하게 되어 性情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太陽人은 항상 마음속에 忿捷之心이 있기 때문에²⁹⁾ 太陽人의 哀性은 偏急해지면 極變하여 그 忿捷之心이 드러나 忿怒激外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아야할 점은 哀怒喜樂之情은 人事에 접하여 발생하는 기운의 변화이고 哀怒喜樂之性은 天機를 察할 때 발생하는 기운의 변화인데 性을 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情으로 變할 수

26) 白裕相, 張祐彰. 少陰人과 仁性의 관계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3). p.98.

27) 李濟馬 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77. 朴性植의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 의하면 ‘忿捷’이 ‘忿懣’가 되어야 옳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는 위 네 가지 마음이 모두 『大學』의 正其心에 대한 언급으로 『大學』에서의 “所謂修身, 在正其心者, 身有所忿懣則不得其正, 有所恐懼則不得其正, 有所好樂則不得其正, 有所憂患則不得其正.”이라고한 조문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28)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著.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7. “雖好善之心, 偏急而好善則, 好善, 必不明也.”라 하였으며 『性命論』에서는 “耳目鼻口之情, 行路之人, 大同於協義, 故好善也. 好善之實, 極公也. 極公則, 亦極無私也.”

29)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著.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277. “太陽人之心, 每不得所欲, 而忿捷之心, 恒放於胸中也.”

있는가이다. 이것은 우리의 本性인 性情이 정확히 구역이 나뉘어져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처음에는 好善하는 마음으로 天機를 살피고 받아들이나 주변의 인물이나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이때에는 惡惡하는 기능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偏急함이나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 정상적인 性의 기능이 가려지고 인위적인 情의 기능으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性은 察天機하여 외부세계로부터 내 안으로 기운을 받아들이는 好善의 기능이고 情은 行人事하면서 내 四臟에 저장되어 있는 기운을 발동시켜 밖으로 드러내면서 惡惡하는 기능이 때문에 善聲, 善色, 善臭, 善味를 耳目鼻口가 받아들일 때에는 好善이 無雙한 耳目鼻口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哀怒喜樂之性이 그대로 기능할 것이나 惡聲, 惡色, 惡臭, 惡味를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耳目鼻口가 아닌 惡惡이 無雙한 肺脾肝腎의 기능을 빌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惡惡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다면 惡은 ‘윤리적으로 나쁘고 그릇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융화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이나 아니면 내게 맞지 않아 서로 어그러지는 기운이나’를 기준으로 내게 맞지 않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惡惡인 것이다. 그래서 察天機하는 주변 여건에 따라, 또 察天機하는 주체인 나의 마음 상태에 사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好善의 기능으로만 性이 動할 수도 있고 아니면 惡惡의 기능이 강력하게 발휘되어 情이 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相成相資하여 형성되는 기운은 출발은 哀怒喜樂之性이지만 결과는 哀怒喜樂之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耳目鼻口가 天機를 察하면서 好善의 마음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것을 좋아하는 순수한 本性으로 마치 仁性和 비숫하며, 肺脾肝腎이 人事를 행하면서 惡惡의 마음을 통하여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은 是非를 가려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義性和 비숫하다고 할 수 있다.

3) 相成·相資에 의해 형성된 情과 促急之情의 차이
 그렇다면 太陽人의 哀性이 極하여 怒情이 動하게 된 상태와 太陽人이 交遇를 行할 때 怒情으로 勇統하

게 交遇를 하는 상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四象醫學草本卷』 「第二統」의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四象人이 稟賦받은 性氣에 대해서 규정을 먼저 짓고, 그 性氣에 따라 드러나는 특징을 기술한 다음, 각 체질의 安身의 조건에서 마음상태, 그리고 接人의 조건에서의 마음상태로 발전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다.

安身の 조건이란 『格致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自己獨得之性’으로 타인과 접하지 않은 나 혼자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이고, 接人의 조건은 『格致藁』에서 ‘與人相接之性’이라 하여 타인과 접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인 것이다. 여기서 다시 『格致藁』 「反誠箴·乾箴」의 天命之道와 人性之德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喜怒哀樂의 人性에는 未發之性과 已發之性이 있으며, 往來臨立의 天命에는 自己獨得之性(不往來臨立之命)과 與人相接之性(往來臨立之命)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東醫壽世保元』과 『四象醫學草本卷』의 용어를 대입시키면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은 性氣로, 喜怒哀樂之已發之性을 情氣로, 自己獨得之性을 安身으로, 與人相接之性을 接人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이란 朱子의 天命之性으로 淸淨寂滅한 상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東武의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란 표현 중에서 언급된 性情으로서 喜怒哀樂이 표출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이다.³⁰⁾ 이러

30) 李濟馬 原著, 朴大植 譯注. 格致藁. 경기도, 창계출판사. 2002. pp.204-206. “道也者, 天命之道也. 天命之道, 孰可須臾? 離於斯乎? 德也者, 人性之德也. 人性之德, 何不顯沛? 必於是乎! 是故, 君子必戒慎乎, 其所不覩, 而慎獨致知. 恐懼乎, 其所不聞, 而慎獨致知.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慎獨而致知者, 天下之大本也. 修身而行世者, 天下之達道也. 往必有哀, 來必有樂, 臨必有怒, 立必有喜. 喜怒哀樂, 人性也. 往來立臨, 天命也. 以天命而授人性者, 天命之性也. 以人性而順天命者, 率性之道也. 喜怒哀樂之未發, 卽致知慎獨也. 致知慎獨卽戒慎恐懼也. 致知慎獨, 不息而久, 則修道之教也. 既有來往立臨之命, 則亦自有不來往, 不往來立臨之命也. 既有喜怒哀樂, 已發之性, 則亦自有喜怒哀樂, 未發之性也. 不來往, 不立臨之命, 豈非處獨之命乎? 獨之所性, 孰如戒慎恐懼, 漸次以中乎? 是故, 喜怒哀樂者, 來往立臨之間, 與人相接之性, 而有節不節也. 戒慎恐懼者, 不來往不立臨時, 自己獨得之性, 而有中不中也. 自己獨得之性, 盡於內, 則與人相接之性, 盡於外也. 性

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人性		天命	
內	喜怒哀樂之未發之性	性氣	不往來臨立之命	安身
外	喜怒哀樂之已發之性	情氣	往來臨立之命	接人

표 1. 人性和 天命의 內外 變化에 대한 설명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람이 자연적으로稟賦 받은 人性에는 喜怒哀樂之氣가 未發한 상태로서의 性氣와 喜怒哀樂之氣가 已發한 상태로서의 情氣가 있다. 이 性氣와 情氣는 타고나는 本然之性인 것이다. 자신의 본성[本然之性]을 세상에서 발휘할 때 未發之性은 戒慎恐懼, 致知慎獨하여 中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安身에서의 天命이고, 已發之性은 自反하면서 修身而行世하여 節度에 맞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接人에서의 天命인 것이다.³¹⁾

이것을 전제로 『東醫壽世保元』 「四端論」과 「擴充論」에서 언급되고 있는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은 太陽인이 哀性이 遠散하기 때문에 怒情이 促急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稟賦받기를 哀性은 遠散하고 怒情은 促急한 상태로 性氣와 情氣가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太陽인이 怒情으로 勇統하게 交遇를 行할 수 있는 것은 본래 情氣의 특성이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太陽인이 哀性이 極하여 怒情이 動한 忿怒激外한 상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가지는 모두 太陽인의 怒情이지만 하나는 본래 稟賦받은 생리적 怒情인 반면 ‘哀性極則怒情動’하여 忿怒激外의 상태로 나타난 怒情은 太陽인이 비록 好善之心으로 哀性이 動하지만 이것이 促急할 경우 또는 好人이 아닌 사람[不好人]과 함께 하는 경우³²⁾에 好善한 性이 惡惡하는 情으로 變하

여 나타나는 것이다. 太陽인은 본디 哀性이 遠散하고 怒情이 促急한 性情을 바탕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哀性이 怒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怒情은 交遇에서 勇統하고자 發用된 促急한 怒情이 아니고 太陽之耳로 天時를 받아들일 때 형성되는 哀性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서 발생한 怒情이기 때문에 黨與에서 怒情이 暴發하여 肝을 傷하는 것과 같이 激한 양상[忿怒激外]으로 표출되는, 병리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怒情인 것이다.³³⁾ 만약 太陽인이 정상적으로 밝은 好善之心으로 哀性을 발휘한다면 哀怒의 性情이 相成하여 병을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한편 好善之心을 바탕으로 天機를 察한다고 하더라도 실생활에서 天機와 人事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잡한 외부세계를 耳目鼻口로 받아들일 때 取捨選擇을 하는 惡惡의 기능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太陽인이 哀性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怒情또한 실생활에서 요구되어지므로 相成·相資의 기전으로 轉化된 喜怒哀樂의 情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太陽인은 促急한 怒情을 情氣의으로 타고

也. 雖惡惡之心, 偏急而惡惡則, 惡惡, 必不周也. 天下事, 宜與好人做也, 不與好人做則, 喜樂, 必煩也. 天下事, 不宜與不好人做也. 與不好人做則, 哀怒, 益煩也.”

33)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著.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p.17-18.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 怒情動, 怒性極則, 哀情動, 樂性極則, 喜情動, 喜性極則, 樂情動. 太陽人, 哀極不濟則, 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 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 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哀性이 極하여 怒情으로 轉化된 忿怒激外한 상태를 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이 한번 크게 動하게 되면 십년이 되도록 회복하기 힘들고 生死壽夭를 결정할 정도로 인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之德也, 合內外之道也, 時措之宜也.” 喜怒哀樂의 人性에는 未發之性과 已發之性이 있으며, 往來臨立의 天命에는 自己獨得之性(不往來臨立之命)과 與人相接之性(往來臨立之命)이 있다고 하였다.

31) 李濟馬 原著. 朴大植 譯注. 格致藁. 경기도. 정계출판사. 2002. pp.204-205.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慎獨而致知者, 天下之大本也. 修身而行世者, 天下之達道也.”

32)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著.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7. “雖好善之心, 偏急而好善則, 好善, 必不明

났으며, 太陽人의 마음에는 매번 하고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이유로 忿懣之心이 항상 가슴속에 있다는 東武의 著述에 근거하여 哀性이 極하여 相成하는 情氣 또한 怒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은 하였으나 또 다른 기전적인 이유가 있어 哀性이 遠散한 太陽人의 怒情이 2차적으로 脾臟에서 促急해진 것인지, 그 밖의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어 哀의 감정과 怒의 감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III. 結論

1. 性情은 內外관계로 性은 耳目鼻口로 察天機하면서 心을 거처 四臟에 哀怒喜樂之未發之性을 키우는 것이고, 情은 肺脾肝腎의 四臟에 축적된 기운을 發用하여 哀怒喜樂之已發之性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2.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喜性極則樂情動, 樂性極則喜情動.”은 性의 기운으로 好善이 無雙한 耳目鼻口가 善聲, 善色, 善臭, 善味를 받아들일 때 惡聲, 惡色, 惡臭, 惡味를 접하여 耳目鼻口가 아닌 惡惡이 無雙한 肺脾肝腎 내게 맞지 않는 것을 배척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情의 기운이 2차적으로 발동하는 것이다. 즉 察天機할 때 哀性으로 人倫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적절치 못한 상황이거나 察天機하는 주체인 나의 마음에 私心이 깃든 상태일 경우에는 性情이 相成相資하게 된다.

3. 太陽人은 本性的으로 每不得所欲하여 忿懣之心이, 少陽人은 大不得所欲하여 憂患之心이, 太陰人은 大欲得所欲하여 恐懼之心이, 少陰人은 每欲得所欲하여 好樂之心이 항상 가슴속에 놓여있다. 그래서 太陽人의 哀性이 天時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情이 動할 때에는 가슴속의 忿捷之心이 드러나 忿怒激外하게 되며, 少陽人의 怒性이 世會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情이 動할 때에는 가슴속의 憂患之心이 드러나 悲哀動中하게 되고, 太陰人의 喜性이 人倫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情이 動할 때에는 가슴속의 恐懼之心이 드

러나 侈樂無厭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며, 少陰人의 樂性이 居處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情이 動할 때에는 가슴속의 好樂之心이 드러나 喜好不定하게 된다.

4. 相成相資하여 動하게 된 哀怒喜樂之情은 각 체질이 本性的으로 稟賦받은 促急한 哀怒喜樂之情과는 달리 哀怒喜樂之性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극에 달하여 이차적으로 動하게 된 情氣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動하여 臟을 상하면 10년이 지나도록 회복하기 힘든 병리적인 情인 것이다.

본 論文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언급된 相成相資에 대한 原理를 『東醫壽世保元』과 『四象醫學草本卷』, 『格致藁』의 原文을 근간으로 이해해보고자 초보적으로 시도한 論文이나, 이를 출발점으로 哀怒喜樂의 性氣와 情氣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哀怒喜樂之氣가 운동하는 機轉을 명확히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東醫壽世保元』을 비롯한 東武의 著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임상에 있어서도 體質을 감별하고 환자에게 診생 및 생활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參考文獻

<논문>

1. 金貞香. 李濟馬의 性情論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1990. pp.1-2.
2. 白裕相. 四象醫學이 가진 韓國 韓醫學의 特性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1). p.139.
3. 金滿山. 周易의 觀點에서 본 四象醫學原理(1) - 性命論에 관하여. 한국동서철학회. 1999. 18(1). p.9.
4. 白裕相.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1). p.42.
5. 白裕相, 張祐彰. 少陰人과 仁性의 關係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3). p.98.

<단행본>

1. 成校珍. 東洋哲學概論. 서울. 以文出版社. 1989. p.173-181.
2. 李乙浩, 茶山學의 理解. 서울. 玄岩社. 1973. p.311-337.
3. 李乙浩, 洪淳用.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1985. p.27.
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0.
5.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67, 77. pp.24-29, 63-65.
6. 金赫濟 校閱. 原本備旨大學中庸. 서울. 明文堂. 1995. pp.9-10.
7. 李濟馬 原著. 朴大植 譯註. 格致藁. 경기도. 청계출판사. 2002. pp.204-206.
8.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著.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 반룡. 2002. p.142, 277. pp.16-18.
9. 成百曉. 懸吐完譯周易傳義(下). 서울. 傳統文化연구회. 1998. p.603.

